

교육적 콘텐츠로의 한국 대중가요의 활용과 필요

Application and Need of Korean Popular songs as the Educational Contents

정지영
한세대학교 음악학부

Jiyoung Jung(jj0842@hansei.ac.kr)

요약

한국의 대중가요는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산업적 규모도 다른 예술적 장르보다 비중이 높다. 또한 대학 등과 같은 교육기관의 전공신설과 대학원 과정에서의 실용음악 분야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중가요는 사회문화적 경향뿐만 아니라 교육적 그리고 학술적 연구대상으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 측면의 음악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중가요는 교육적 콘텐츠로써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학술적 연구대상으로 대중가요의 정립과 분석을 그 활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대중가요의 작곡가와 시대별 가요경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와 효과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대중음악에 대한 학술적 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활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며 또한 예술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다.

■ 중심어 : | 대중가요 | 교육적 콘텐츠 | 대중가요 활용 | 대중가요 데이터베이스 |

Abstract

The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about the popular music in Korea has been increased and the industry of popular culture has been also growing compared with other fields. In addition to this, many universities in Korea tends to establish departments of popular music for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 Firstly, this paper suggest that the analysis of popular songs can be raised the academic value by the modern music theory. Secondly, the database of Korean popular songs should be built up so that popular songs can be classified to various aspects such as composers, musical style etc. As a result, Korean popular music deserves special consideration not just for the industrial value but for the contents of music education. Furthermore, these research can contribute that popular songs should be regarded and applied as a educational contents for the academic development and social improvement.

■ keyword : | Popular Music | Educational Contents | Application of Popular Music | Database for Popular Music |

I. 서론

대중음악¹에 대한 견해는 주로 역사적, 사회적 그리

고 문화적인 접근들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중음악이 가지는 역할과 기능 중에서 사회적 관련성과 문화적 영향력이 높기 때문이다. 대중성을 담은 양식 중 대중가요는 당시의 시대상들을 민감하게 반영함과 동시에 가사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특성과 사회

1 본 논문에서는 대중음악은 대중가요를 포함하는 포괄적의미로 사용하였다. 또한 실용음악, 응용음악 그리고 생활음악 등의 용어는 대중음악과 같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번호 : #120214-001

접수일자 : 2012년 2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2년 03월 27일

교신저자 : 정지영, e-mail : jj0842@hansei.ac.kr

적 과급성이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력과 경향을 가지는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대중가요는 문화산업적 측면이 가장 많이 부각되어 지는 연구의 영역으로 대중성과 상업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산업적 규모는 다른 분야보다 규모가 크고, 사회적 과급효과는 높고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중가요의 연구는 주로 가사를 통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것과 문화적, 사회적 경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물론 최근에는 대중가요의 문화적, 사회적 비중이 커짐에 따라 대중가요 자체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중가요의 역사적 고찰 역시 가장 많이 연구되어진 측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대중가요에 대한 기능과 그에 대한 평가 및 활용 그리고 일부 작곡가와 가수의 연구 등의 순위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중심적인 관점은 대중가요의 학술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교육적 콘텐츠로서의 필요성을 토대로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방법

대중가요의 학술적 활용을 위한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중가요의 연구경향을 저서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대중가요 연구는 문들의 증가와 내용들을 고찰하여 시대적으로 연구경향이 어떻게 변화를 하였는지 인식하고 대중가요의 높아진 위상과 가치를 보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들을 인지함으로써 본 연구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중가요의 산업적 성향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하는 '음악산업백서'에 음악산업과 관련된 통계자료들을 바탕으로 대중가요의 산업적 규모 및 음악시장의 변화들을 살펴보고 대중가요가 가지는 산업적 가치를 통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중가요를 교육할 수 있는 실용음악관련 학과들에 대한 현황과 악을 통해 대중가요의 음악적 그리고 학술적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활용적 측면에서 학문적 대상으로써의

대중가요의 역할과 정보화의 필요성을 통해 대중가요가 교육적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II. 대중가요 연구의 경향

우선, 대중가요의 역사적 고찰은 특별히 시대적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영미, 이준희 편집(2006)의 '사의 찬미'와 한국대중예술문화연구원의 '한국대중가요사'(2003)에서는 1950년대 이전의 가요들을, 이동순(2007)은 그의 저서 '번지 없는 주막: 한국가요사의 잃어버린 번지를 찾아서'과 이영미(1998)의 '한국 대중가요사'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의 가요들을 시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혜숙, 손우석(2003)의 '한국 대중음악사'에서는 1990년대까지의 대중음악들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들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의 시대적 경향을 담고 있는 대중가요사의 서적은 선성원(2008)의 '우리 대중가요' 인데 초기 대중가요부터 2000년대 이후의 한국 대중가요의 경향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가요에 대한 고찰과 연구는 주로 시대적 흐름과 함께 가요의 가사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대부분이며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음악적인 예술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대중가요가 가지는 강한 가사의 전달성과 서양 음악체계에 있어서 대중가요는 비교적 단순한 선율과 간소화된 화성 - 일반적으로 코드진행이라 지칭되는 -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우리 대중가요는 선율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의 많은 대중가요 작곡가들은 대학기관에서 전문적 음악교육을 받은 인력이라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요의 화성 진행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진행보다는 클래식 음악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화성적 진행과 이디엄(idiom)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화성적 진행과 선율의 윤곽구조에 있어서 많은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 그리고 기법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중가요는 시대적 음악성의 분석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음악본질적인 면에서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되어진다.

대중가요의 비약적인 발전을 반영하듯 1990년대 이후 대중가요를 주제로 하는 논문들이 많아졌다. 1990년대 초반에 대중가요에 대한 학위논문은 5편 내외가 있고, 1995년 이후 17편 내외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40여 편의 논문들이 대중가요를 주제로 다양한 측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 주고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학위 논문들의 대부분은 가사와 사회적 경향에 대한 비교연구, 대중가요와 교육적 자료 및 방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경영학적인 연구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론적 측면에서 대중가요를 연구한 대표적인 논문은 한국 대중가요에 나타난 일본 음계에 대한 것으로 권혜경(1994)은 일본의 미야꼬부시음계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1930년대부터 1950년대 대중가요들을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박경자(1994)는 1980년대까지의 대중가요들 중 요나누끼음계적 경향이 있는 음악들을 소개 및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논문들은 한국 대중가요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의 잔재들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대중가요는 그 시작에서부터 식민지배의 도구로서 충실하게 그 기능을 갖게 된 것이었다. 해방이 된지 40년이 지난 오늘, 무엇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 아직도 저 식민지 하의 오욕스런 문화유산이 옛모습 그대로, 아니면 허울만 바꾸어 쓴 채 우리 눈앞을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은 비단 노래의 영역에만 국한된 현실을 아닐 것이다[1].”

최근 한국의 대중가요는 일본의 부정적 영향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 대중가요의 영향력이 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즉, 대중가요를 통해 현 시대적 경향을 나타내어 대중가요의 위상과 사회적 비중을 나타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측면

의 논문들은 언론매체, 산업구조 등을 다루는 사회경제학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중가요의 사회적 가치와 수요증가에 따른 다양한 측면의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중가요를 분석적 대상으로 삼고 이론적 그리고 기법적으로 적용하는 연구의 비중도 함께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분석의 결과물들이 교육적 콘텐츠로서 활용의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III. 대중가요 연구의 필요성

아도르노(Theodor Adorno, 1903-1969)는 대중음악에 대해 ‘가벼운’ 소위 진지하지 못한 음악이라는 비판을 하였으며 대중음악은 문화산업으로써 인간이 사회적 객체로서 자의의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이후 대중음악은 다원성과 음악적 실천, 그리고 대중음악의 예술적 발전과 공공성에 대한 의미라는 측면에서 그 영향력이 높아졌다. 결국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현대 대중음악의 가치가 더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한국 대중가요의 위상이 다른 음악장르 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970년대의 통기타 가수들의 활동, 대학가요제를 통한 대중 음악분야의 재원배출, 1980년대의 조용필의 등장, 다양한 발라드 가수들의 등장, 1990년대의 서태지의 등장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음악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3].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양질의 음악성을 가진 K-pop의 보급으로 지역을 초월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대중가요는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 특별히 젊은 세대에 대해 - 어느 분야보다도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때때로 이러한 대중가요의 영향력은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져 문화적 역할의 비중을 축소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소위 전문적 혹은 전통적인 음악분야와 비교할 때 큰 비중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대중음악의 비중

2 국립중앙도서관의 석사, 박사학위 논문, 1987년부터 2009년 7월 현재까지의 국내 학위논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의 발전과 음반시장의 축소로 인해 대중음악이 위축된 면은 있으나 다양한 방송매체와 인터넷과 같은 첨단 매체들의 발달로 인해 해마다 음악시장의 산업구조는 다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특별히 이러한 발전과 영향력은 최근 2009년 2월 정부에서 ‘음악산업진흥 중기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으로도 커지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침체되어지는 음반시장의 내수시장의 활성화, 음악산업 인프라 구축 및 성장기반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대중음악에 대한 발전과 그에 따른 필요과제들을 위한 정책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4].

그러므로 대중가요에 대한 산업적, 문화적 지원과 더불어 보다 음악적이고 학술적인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중가요의 음악적 분류 및 분석 등은 대중가요가 일시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교육적 콘텐츠로 정립 및 그 자료의 정보화는 대중가요 연구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하고 교육적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1. 대중가요 산업규모의 상승에 따른 필요성

대중가요는 라디오와 TV매체,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그 저변이 급속도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 음악의 장르별 음반판매량을 조사한 것이다. 국내 대중가요의 음반 판매율이 2001년 76%로 다른 음악적 장르인 클래식과 팝음악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음반 중 국내 대중가요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7년에는 국내가요의 음반 판매율이 66%로 급격히 감소되어지는데 이는 디지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음악을 구매하고 따라서 전체 음반판매의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5]. 하지만 음반 판매율에서 다른 음악 장르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대중가요는 음

악적 인구의 대부분이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학술적인 분석과 예술적 가치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1. 국내 음악의 장르별 음반 판매율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국내 가요	76%	74%	78%	80%	80%	81%	66%
팝/클래식	24%	26%	22%	20%	20%	19%	34%

(출처: 2007, 2008 음악산업백서 자료 편집, 단위:%)

장르별 음반 판매율 조사는 국내 대중가요의 절대적 비중으로 인해 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2009 음악산업백서’부터 장르별 음반 판매율 조사는 공식적으로 보고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음악콘텐츠산업협회에서 발표한 2010년과 2011년 음반 판매순위 총결산을 보면 최근까지도 국내가요의 절대적 비중을 알 수 있다.

표 2. 2010년, 2011년 상위 100위권 음반 장르별 현황

구분	국내가요	팝뮤직	드라마OST	기타
2010년	93	2	5	0
2011년	86	0	11	3

(출처: 음악콘텐츠산업협회자료 편집, 단위:편)

[표 2]에서 연간 발매된 음반 중 상위 100위권의 장르를 분류해 보았을 때 2010년에는 93편이 국내가요 음반이, 드라마 OST음반이 5편, 팝음악 음반이 2편을 차지하였다. 2011년도 86편이 국내가요의 음반이고 드라마OST음반이 11편, 국내가요를 다시 편곡하거나 다른 장르의 음반이 3편이었다. 드라마OST 음반도 대부분이 대중가요의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음반시장의 대부분을 대중가요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2000년대 이후 음악산업의 큰 변화는 음반시장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디지털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대중가요가 가지는 디지털시장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전체 음악산업 분야 중 국내가요의 규모가 높아졌다.

표 3. 2004-2008년 음악 음반과 디지털시장 규모비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음반시장	1338	1087	848	788	811	802
디지털시장	2112	2621	3562	4276	5264	5696

(출처: 2009, 2010 음악산업백서 자료 편집, 단위:억원)

인터넷, 모바일 등의 디지털 음악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국내 음악산업의 형태는 크게 변화되었다. 2004년 이후 들어 음반시장이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음악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3]에서 2004년부터 국내 음반시장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크게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음반산업은 2004년 이후 급격히 줄어 1천억대로 되었으며 2006년에는 1천억원 아래의 규모로 축소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디지털 음악시장은 모바일 음악산업,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가져왔으며 2009년은 2004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4천억원대가 넘어선 규모를 볼 수 있다[7].

인터넷과 모바일을 포함한 디지털 음악시장은 2000년대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의 사업 참여, 주요 포털사이트의 서비스 등을 통해 음악산업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이후에는 국내 iPhone의 등장과 국내 데이터 요금의 하락으로 인해 음악산업이 모바일 음악시장 중심으로 산업적 구조가 변화하는 현상을 보인다[8]. 여기서 디지털 음악시장의 가장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국내 대중가요의 분야로 이러한 음악산업 규모의 성장과 비중을 보더라도 대중가요의 교육적 콘텐츠로의 활용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음악산업은 디지털이나 음반시장 이외에도 음악이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영화, 영상, 출판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 등에서의 음악사용을 볼 때 그 시장의 규모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음악시장을 고려하고 이 가운데에서도 국내 대중가요의 높은 비중을 볼 때 학문의 분야로서 예술적 측면에서의 콘텐츠 개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2. 전문적 대학기관의 증가에 따른 필요성

한국에서 전문적 음악 교육기관에서는 음악의 분야에 있어서 주로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교육적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음악대학이나 음악학과에서는 서양음악에 있어서 전통 클래식(Classic)음악을, 한국 음악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한국음악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들로 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서양음악이 한국에 전파되고 서양식 교육기관이 자리를 잡는 시기인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교육이 시작되고 당시 조선의 음악교육은 기독교가 점점 조선에 보급되면서 몇몇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06년 2월 통감부가 통감정치령을 시작하고, 새로이 교육제도를 정비하면서 음악교육이 관, 공립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비되어진 음악교육 정책과 내용은 다분히 ‘제국신민다운 자질과 품성을 기르도록 할 것’을 요지로 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내용보다는 서양음악과 일본식 창가에 대한 가장 위주의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었다[9].

이후 대학과 같은 많은 전문 음악교육기관들은 대부분 서양식 대학체제를 따르면서 크게 서양음악과 한국 음악 전공의 교육기관을 형성해 왔다. 그러므로 1980년대까지도 대중음악이나 혹은 실용음악이라는 분야는 대학기관에서 교육하는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없었으며 극히 일부 전문대학에서 실용음악과를 두어 대중가요에 대한 전문적 인력을 배출하였다. 1989년 서울예술대학(전, 서울예술전문학교)에서 처음으로 실용음악과라는 명칭으로 학과가 생겼으며 주로 전문대학에서 실용음악전공을 신설하였다. 1997년 한서대학교에서 영상음악과라는 명칭으로 실용음악교육을 시작하여 이후 실용음악은 4년제 대학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1990년대 말 이후 많은 대학들이 대중가요와 실용음악의 경제적 비중과 문화적 영향력의 증대, 무엇보다도 대중음악을 공부하고자 하는 많은 필요성에 의해 실용음악관련 학과들과 대학원과정들을 신설하여 교육하고 있다[10].

이후 실용음악이나 대중음악 혹은 전통적 클래식음악전공이 아닌 개념에서의 응용음악, 생활음악 등의 명칭으로 2년제와 3년제 대학에서의 실용음악관련학과

개설이 현저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전문대학에 실용음악과의 신설이 크게 증가하여 2006년에는 총 39개 대학에서 실용음악관련 학과나 전공을 가지고 있다. 2009년에는 45개 전문대학에서 실용음악 관련 학과 및 전공을 가지고 있다[11].

표 4. 2006-2009년 대학 실용음악관련학과 개설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 3년제	39	46	45	45
4년제	15	32	27	29
대학원	18	21	21	36

(출처: 2006-2010 음악산업백서 자료 편집)

4년제 대학교에서도 1997년 한서대학교와 대구예술대학교를 시작으로 실용음악관련 전공이 신설되었다. 4년제 대학교에서는 주로 기존의 음악학부나 학과에 실용음악전공을 신설하는 형식으로 2009년까지 29개 대학교에서 실용음악전공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용음악이나 대중가요전공의 학술적이고 연구적 측면의 발전을 알 수 있는 것이 대학원 과정의 증가를 들 수 있다. 2006년 18개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에 실용음악전공을 가지고 있었으며 2009년까지 36개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에 실용음악관련전공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실용음악이나 대중음악을 학문적 견지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현상이며 기존의 클래식 음악교육을 받은 인원들이 대학원과정에 실용음악전공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2].

이와 같이 대학에서의 대중음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용음악관련 전공학과와 신설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중음악이 가지는 사회적 요구와 비중을 대학기관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인 2년제 대학에서의 음악관련 학과는 거의 대부분 실용음악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실용음악전공 비중이 클래식 전공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실용음악관련 전공이 없는 클래식 바탕의 음악학과 혹은 학부를 둔 대학에서도 세부 전공별로 전통 서양음악 혹은 한국음악이외에도 컴퓨터 음악전공, 대중음악 및 실용음악전공 등을 따로 두

어 개별적인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경향에 따라 더 이상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학과의 교육적 내용은 한 장르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음악적 장르들을 교과과정에 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과정 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에서 실용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는 대중음악이 더 이상 비전문가들이 하는 음악적 장르가 아니라 전문적인 음악의 한 분야로 그 학문적 위상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3. 통합적 교육콘텐츠의 필요성

한국 대중가요의 음악적 재료는 대부분 서양음악의 조성음악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일제시대 이후 서양음악 체계의 찬송가의 전파, 공교육에서의 서양음악 교육 시행 등의 영향으로 서양의 7음계체계는 보편적인 음악적 재료로 되어 왔다. 동일하게 대학교에서 전통 고전음악을 전공하는 학과에서도 역시 서양의 음악적 체계를 따르고 있다.

다만, 그 접근 방법이 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데 대중가요에서는 주로 선율과 기본적 구조의 화성 진행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와 달리 전통 클래식 음악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섬세한 음악적 구조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대중가요는 기본적 선율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악기 구성을 이루어 연주될 수 있는 용이성과 대중성을 가진다. 그러나 클래식음악은 첫 악기구성이 선율, 화성과 함께 중요한 소재가 되며, 다른 악기들로의 편성이 용이하지 않은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클래식음악과 대중음악은 대부분 음악적 재료가 장·단조 중심의 7음계이며 이러한 동질성에서 볼 때 대중음악과 클래식음악에 대한 동일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며, 대중음악에 대한 분류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중가요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재 출판되어진 50여종의 실용음악이론서들을 분류하여 보면 실용음악 통론에 관한 내용은 일반 클래식음악을 위한 통론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대부분의 실용음악이론의 저서들은 화성-소위 코드진행-진행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이러한 화성진행 위주의 내용은 역시 기존 클래식음악 분야의 교과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한 음악적 체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질성과 함께 많은 대학기관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볼 때 보다 통합적이고 공통적인 체계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클래식과 전통음악 분야에서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을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근거와 이론을 가지고 작곡가의 의도와는 별도로 새로운 논리적 접근을 하여 작품의 또 다른 가치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활동 등이 활발하다. 즉, 하나의 음악적 분석이론을 가지고 클래식음악과 대중가요가 동일하게 접근되어지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분석적 결과물들을 통해 공통되게 얻어질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음악적으로 밝히는 연구를 말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기관에서 음악의 교과내용으로 사용되는 음악들이 클래식과 대중음악, 혹은 전통음악과 대중음악과 같은 이분법적 시각이 아닌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분야들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서로 다른 음악분야로 연구의 대상을 넓히고 교육적 콘텐츠로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음악적 장르를 구분하는 교육적 내용보다는 통합되어진 교육적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크로스오버(Crossover)³, 팝페라(Popera)⁴, 등과 같은 새로운 음악적 양식들의 등장으로 클래식음악과 대중음악의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장르들이 많다. 즉 대중가요와 클래식음악의 분명한 경계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대중가요는 그저 화음진행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독창적인 음악적 형식의 구조, 화성진행, 음향의 독창성 등을 가지고 발달하고 있다. 특별히 다양한 악기편성의 편곡들은 이전 대중가요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대중가요의 음악적 특징과 새로운 장르들의 등장을 볼 때 클래식음악의 연주자들과 대중음악을 하는 연주자들의 인식은 이미 변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런 측면에서 대중음악에 대한 분류 및 통합적 측면에서의 분

3. 서로 다른 장르가 교차한다는 뜻으로 원래는 오늘날에는 하나의 음악을 다른 음악적 장르로 변주하는 형식을 말한다.

4. 팝과 오페라의 합성어로 대중화된 오페라를 말한다. 1997년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오페라를 대중성 있게 부르기도 하며 때때로 대중가요를 전통 오케스트라 반주에 부르기도 하는 음악적 장르이다.

석연구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IV. 대중가요의 교육적 콘텐츠로의 활용방안

1. 학술적 연구대상으로의 활용

대중가요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연구들이 행하여지고 있다. 음악적 측면에서도 다른 음악적 장르보다 더 비약적 발전을 하였으며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대중가요의 작곡가들도 그 음악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그들의 작품들은 시대를 초월한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중가요를 적극적으로 현대적이고 학술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음악이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현대적 분석이론 등이 등장하면서 많은 작품에 적용하는 연구의 활동들이 있다. 이러한 분석들은 화성, 리듬 그리고 음악적 경향까지 현대적 기법에 의해 논리적 정립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현대 집합이론(Set Theory)에 의거해 시대를 초월한 많은 클래식음악을 분석한 포르트(Allen Forte)는 분석의 영역을 넓혀 대중음악을 분석하였다. 미국 대중음악의 중흥기인 1920년대에서 1950년대 대중 발라드음악을 리듬과 화성 그리고 전체적인 대중음악의 양식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그는 현대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였고 이러한 분석은 보다 많은 음악학자들의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그는 현대적 분석기법을 통해 미국 대중음악에 보여 지는 화성적 구조에서 으뜸화음의 2전위화음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대중가요의 예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동시에 학술적 연구대상으로 그 의미를 높이고 있다[13].

리듬과 화성적 측면의 분석은 단순한 코드의 진행이 아닌 대중가요의 선율과 화성 속에 담겨진 음악적 이디엄을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화성적 구조의 분석을 통해 단순한 코드 중심의 대중가요가 보다 섬세하고 미묘한 화성들의 진행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진행뿐만 아니라 화성적 사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화성에서 복잡하고 불협화적인 화성들이 과감하게 사용되

었는지 규명하여 대중가요의 예술성을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에버레트(Walter Everett)의 연구에서 그 방법적인 면을 모색할 수 있겠다. 그는 ‘The Beatles as Composers: The Genesis of Abbey Road, Side Two’에서는 비틀즈(Beatles) 음악의 전체적인 악기편성과 성악편성을 중심으로 섬세한 화성과 기본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악보1에서 화성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비틀즈의 노래 속에 조성적 특징과 일관적인 조적 중심음 혹은 화성들을 찾아내는 결과를 가진다[14].

악보 1. 비틀즈, “Here Comes the Sun”의 화성적 구조⁵



최근에는 음악의 계층적 구조를 분석한 20세기 음악 이론학자인 쉐커(Heinrich Schenker, 1868-1935)의 분석법이 대중가요나 재즈의 음악에 적용되어진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라슨(Steve Larson)의 논문에서 클래식 음악의 분석기법으로 적용되어 오던 쉐커의 분석법을 재즈에 적용한 연구를 볼 수 있다. 라슨은 재즈(Jazz)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9화음, 11화음, 13화음의 해결과 진행 그리고 즉흥연주적 측면의 선율적 구조를 쉐커의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재즈음악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논리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악보2에서 보면 ‘The Touch of Your Lips’를 에반스(Evans)의 연주를 기초로 하여 음악적 계층적 구조를 단계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재즈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화성적 구조와 연주자의 특징적인 성향들을 구조적으로 통찰할 수 있다. 라슨의 논문에서는 재즈 작품의 분석을 바하(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와 쇼팽(Fryderyk Chopin, 1810-1849)의 선율적 연구에서 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분석적 대상으로 클래식과 재즈음

악을 동일하게 선택하여 통합적인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5].

악보 2. The Touch of Your Lips의 쉐커기법적 분석⁶



2.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활용

2.1 디지털콘텐츠 개발의 사례

국내 대중가요의 디지털콘텐츠화를 통해 음악연구의 정보와 그 결과물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되어질 수 있다. 장르의 특성을 각각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의 제공은 국내가요 자료들을 교육적 그리고 학술적 활용을 하는데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을 관리 및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국내 가요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연구과 영화의 분야에서는 자료별 혹은 장르별 데이터베이스화의 구축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국내 대중가요의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표 3]에서는 독일어권 공연예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공연예술프로젝트>의 성공적 사례로 기본적 디렉토리 방식을 채택하여 장르별, 시대별, 작가별로 해당 작품의 콘텐츠를 사용자가 찾도록 되어 있다. 사용자의 정보접근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 <공연예

5 Walter Everett, "The Beatles as Composers: The Genesis of Abbey Road, Side Two" in Concert music, rock, and jazz since 1945. p. 183.

6 Steve Larson, "Analyzing Jazz: A Schenkerian Approach," Journal of Music Theory 2011, 55(1): p. 230.

술프로젝트>는 축적된 자료에 검색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작품, 작가, 키워드, 전체 항목인 4가지 검색방식을 취하는데 이를 통해 일반 기초자료와 동영상 및 사운드 자료인 멀티미디어 자료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사용자는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표 5]에서 보면 장르별 개별 작품의 구성으로 연극, 오페라, 카바레, 인형극, 마임, 퍼포먼스로 나누어 장르에 따른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작품에 대한 국내외 자료들을 소개하며 이에 따른 이미지나 동영상의 자료들을 정보화하고 있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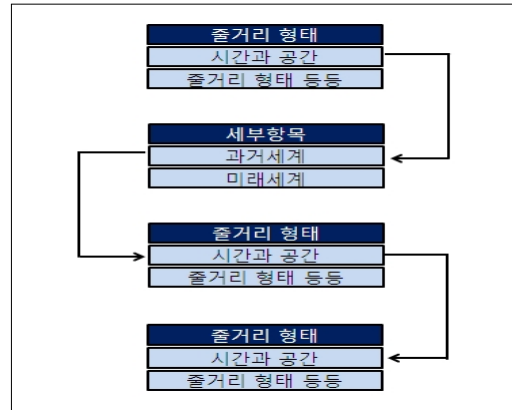
표 5. 독일어권 공연예술 데이터의 개념적 내용

장르	기본정보	개별작품구성	미디어
연극/오페라/카바레 /무용극 인형극/마임 /퍼포먼스	발달사 개념 공연양식 공연극단 연출자 정보	내용설명 작품해설 공연사(영화/음악) 국내 번역본 해설 및 참고자료	이미지 동영상 음악

영화분야에서도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정보공유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영화의 비주얼 이펙트(Visual Effect)에 대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모델화하여 비주얼 이펙트의 구현내용과 구현방법을 중심으로 구성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영화의 일반적 자료들이 아닌 비주얼 이펙트의 사례들만 모아서 기법적인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 특징을 가진다.

[표 6]은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보여주는데 관계형 모델로써 영화에서 구현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영화의 제목이나 시기 등과 같은 일반적 정보가 아니라 데이터의 상위개념을 줄거리 형태-세부항목-비주얼 이펙트유형-영화별 장면의 유형으로 검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영화자체보다는 특정한 효과인 비주얼 이펙트로 구체화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영화분야에서도 특정 부분의 자료제공 및 공유에 큰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17].

표 6. 데이터 검색을 위한 관계 다이어그램



2.2 대중가요의 디지털콘텐츠 개발

한국 대중가요는 예술적 발전과 더불어 다른 어떠한 예술적 장르보다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어지고 있으며 즉각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음악산업적 측면에서도 그 규모와 수요를 볼 때 대중가요는 양적으로 많이 창작되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중가요는 시대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작곡가 개인의 개성과 특징들이 담겨진 작품들이 수없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대중가요를 작곡하는 작곡가들은 대학과 같은 기관에서 교육받은 전문적 인력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 작곡가가 많은 작품들을 작곡하므로 작곡가와 작품들의 자료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대중가요는 연도별, 작곡가별 그리고 가수별로 정리되어야 하고 또한 그 특성 및 편곡적 형태, 가사내용을 요약하는 등 연구대상으로써의 공신력을 가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대중가요의 정확한 자료들을 정보화하는 1차적 자료와 이를 이용한 매체를 총괄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대중가요에 대한 효과적인 학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우선, 정확한 대중가요들의 곡명, 규모, 작곡연도, 출판 및 발매 연도 등과 같은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보다 많은 대중가요 연구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1차적 정보뿐만 아니라 [표 6]와 같이 특정 기법이나 경향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면 국내 대중가요가 보다 세부적인 단계들을 구축하여 악곡의 형

식, 악기와 음향의 편성 및 연주, 연주 기록 및 활용적 형태 등 다양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음악적 경향을 통찰할 수 있는 구체적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대중가요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물인 논문, 저서 그리고 음반 등 많은 자료들이 더 효율적으로 그 사용을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가요는 문화적 측면에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가요의 큰 비중을 보아도 역시 시기별 대중음악에 대한 자료정리가 필요하다. 물론 대중음악사적 측면에서 많은 저서와 논문들을 통해 시대적 정리와 그리고 당대의 인기가요들과 가수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가진 공신력 있는 대중가요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연구 환경적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V. 교육적 콘텐츠에 대한 기대효과

음악분야에서 대중가요에 대한 비중과 가치는 상당히 높아져 있으며 더불어 대중성을 가진 문화적 매개체라고 간주되는 동시에 학문적 대상으로도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중가요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대적 기법에 의거한 분석과 학술적 활동 등을 통해 대중음악 분야의 보다 학문적 정체성을 높여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범위의 대중음악을 공부한 인재들에 의해 그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중가요나 그와 유사한 실용음악분야 진출의 시작을 대학전공 선택을 시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대중음악은 이제 더 이상 비전문가의 활동 범주에 속하는 장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중가요의 체계적인 연구 및 분석은 이러한 일련의 제도와 기관이 시행하는 교육활동에 많은 소재나 근거자료들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대중가요가 가지는 특성상 음원 등이 공유되는 것은

산업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화는 불법다운로드 등과 같은 형태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대중가요의 깊이 있는 학술적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오늘날 대중음악 분야에 있어서 야기되는 표절과 저작권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전문적인 기준과 근거에 대한 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

대중가요의 학술적 연구 및 분석의 확대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교육학 분야뿐만 아니라 방송 등 사회적으로도 그 활용도가 매우 높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음악적 연구에 있어서 전통적인 연구 방식이 아닌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새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다채로운 연구의 결과물들을 기대할 수 있다.

음악산업은 이미 1990년대 이후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즉 음악관련 분야들이 공연, 음반, 출판 등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에서 디지털화 되어가는 등 산업적 형태가 많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구도 속에서도 일정한 음악적 콘텐츠들은 많은 문화산업의 형태로 활용되어지는 경향을 가지기도 한다. 원 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 하나의 소재로 다른 장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중가요의 분석과 정보화는 이런 전략을 위한 유용한 콘텐츠로써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영화와 뮤지컬의 장르에서 원 소스 멀티-유스의 활발한 적용의 결과로 한국에서 뮤지컬 전용극장의 건립을 이루었고 더 나아가 문화매체의 활용방안과 산업적 파급효과도 가지게 될 수 있었다[18]. 최근 대중성이 높은 가요들이 뮤지컬(Musical) 혹은 연극, 영화의 다양한 장르로 재창조되어 지는 경향이 많다. 그러므로 깊이 있는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 클래식음악과 대중음악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동시에 다른 분야에서도 발전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VI. 결론

대중가요의 산업적 그리고 사회적 비중을 볼 때 교육

적 콘텐츠로의 활용과 개발을 위한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실용음악이나 대중음악을 교육하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문 음악교육 기관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교육적 내용과 방향성으로 대중가요에 대한 학술적 차원에서의 분석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클래식 음악분야에서 이루어진 현대 분석 이론을 대중가요에 적용하여 대중가요가 가지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넘어 예술적 그리고 학술적인 가치를 고양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적으로 실용음악과의 교과과정이나 일반 음악학과에서 실용음악이나 대중음악에 대한 교육적 내용의 강좌에서 이러한 대중가요의 현대적 기법을 적용한 분석은 유용한 교육적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대중음악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물은 실용음악과에 대한 교과과정과 동시에 음악학과의 대중음악에 대한 수업에 대한 영역에서 학습 내용으로써 보다 넓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제공 되어질 수 있다.

또한 대중가요의 기본적 정보를 공유하고 정확한 자료의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대중가요들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중가요가 가지는 산업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양상들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들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보다 정확하고 유효한 대중가요의 문화적 원형들을 도출할 수 있다.

현대 이론을 대중가요에 적용하는 활용과 정보화에 대한 제안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와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새로운 논리적 접근을 가진 이론의 연구대상으로써 대중가요는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며 대중가요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따른 지식공유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은 대중가요의 가치와 의미를 보다 음악 본질적 측면에서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대중가요의 데이터베이스화는 최신 대중가요나 혹은 여전히 상업성을 가지는 소위 인기가 있는 작품들에 대한 학문적 공유의 한계성과 영리추구가 아닌 연구를 위한 규정 등은 앞으로 연구되어

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 정보의 공유를 시작으로 데이터베이스화의 적절한 효용이나 유료화 범위 등과 같은 분야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대중가요의 활용적 연구는 교육적 콘텐츠로의 정립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음악 분야들과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 대중가요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으로 제시되어 질 수 있다.

참고 문헌

- [1] 박경자, “한국 대중가요에 나타난 일본음계의 고찰-요나누키 음계를 중심으로”, 한국음악학논집, p.534, 1994.
- [2] 이수완, “아도르노와 대중음악”, 낭만음악, 통권 71호, pp.23-45, 2006.
- [3] 이혜숙, 손우석, *한국 대중음악사*, 리즈앤북, 2003.
- [4]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진흥 중기계획*, 2009.
- [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7 음악산업백서*, 2008.
- [6] <http://www.gaonchart.co.kr/main/section/album/list.gaon>
- [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8 음악산업백서*, 2009.
- [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9 음악산업백서*, 2010.
- [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9 음악산업백서*, 2010.
- [9] 오지선, *한국근대 음악교육*, 예술, 2003.
- [10] 이정선, “대학 실용음악교육의 시작과 학과 개설 형태”, 음악교육연구, 제38집, pp.120-121, 2010.
- [1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 2009 음악산업백서*, 2007, 2010.
- [1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2009 음악산업백서*, 2007-2010.
- [13] Allen Forte, *The American Popular Ballad of the Golden Era, 1924-1950*, Princeton University

- Press, 1995.
- [14] Elizabeth West Marvin and Richard Hermann (Ed.), *Concert music, rock, and jazz since 1945: Essays and Analytic Studies*, University Rochester Press, 2002.
- [15] Steve Larson, "Schenkerian Analysis of Modern Jazz: Questions about Method," *Music Theory Spectrum*, Vol.20, No.2, pp.209-241, 1998.
- [16] 김요한, "공연예술 장르의 콘텐츠 구축 - 개별 작품의 DB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14권, pp.185-202, 2005.
- [17] 조국정, 석혜정, "영화 비주얼 이펙트 제작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자료검색 시스템 제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제9권, 제6호, pp.92-102, 2009.
- [18] 한혜진, "뮤지컬 문화공연 콘텐츠의 원소스 멀티유즈 활용방안", *한국콘텐츠학회 2006 추계 종합 학술대회 논문집*, 제4권, 제2호, pp.180-184, 2006.

저 자 소 개

정 지 영(Jiyoung Jung)

정회원



- 1993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작곡과(학사)
 - 199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작곡과(석사)
 - 1998년 9월 : New York University, 음악과 작곡전공(석사)
 - 2002년 6월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음악과 작곡전공(박사)
 - 2002년 9월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음악과 음악이론전공(석사)
 - 2007년 ~ 현재 :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작·편곡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작곡, 음악이론, 대중음악